

8 인터뷰-양 캠퍼스 총학생회 대면 학기 인터뷰

코로나 이전 총학 역할 회복이 첫 과제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었던 비대면 학기를 보내고, 기다렸던 대면 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신문은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 자치를 이끌어야 할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를 만나 대면 학기 각오를 들어봤다.

Q. 임기 시작 후 한 학기가 지난 시점이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안건은?

【서울】 이제 틀을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약 사항들도 다시금 점검해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할 사안은 오는 9월 진행할 축제가 있다. 대면으로 전환되는 축제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학점 표준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국제】 ‘ON’ 총학은 현재 임기 연장에 의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선출을 통한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잘 유지하고, 대면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게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싶다. 2학기에 예정된 학생 행사와 선거, 인수인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주된 목표다.

Q. 대면 학기 총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울】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총학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총학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면 학기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학교에서 내려왔던 전통을 잇고 학생 자치가 다시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국제】 다른 대학과 다르게 우리 학교는 2학기에도 전면 대면을 선포하지 않았다. 대면 체제가 확대되지만, 비대면 방식이 여전히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이번 학기를 잘 넘기고 싶다. 비대면 체제를 더 많이 경험한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면 체제에서 학교생활을 하거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낯설거나 당황스럽지 않게 돕는 것이 총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비대면 이벤트는?

【서울】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싶어 줌



좌측부터 서울캠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총학생회장, 김다은(무역학 2018) 부회장 (사진1) 좌측부터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부회장 (사진2)

(ZOOM) 프로 계정 대여사업의 대체제로 메타버스 세미나실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 주간에 사용한 게더타운을 활용해 세미나실을 만들었다. 제작은 완료됐고, 테스트를 거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ZOOM처럼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비대면 회의 등의 소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제】 지난 학기 입학 주간 게더타운과 같은 비대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일회성으로 진행된단 느낌을 받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느꼈다. 비대면 이벤트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에 힘을 싣고 싶다.

Q.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모두 운영된다. 비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학내 공간을 확보할 방안은?

【서울】 지난 학기에는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들을 위해 강의실, 세미나실과 같은 공간을 단과대학에서 별도로 마련했던 적이 있다. 현재 공간 부분은 이미 확정된 스터디카페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밖으로 확장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강의실을 배정해 비대면 수업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제휴를 통해 저렴하게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국제】 수업 공간 부족에 대해선,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비대면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본다. 이 인프라를 대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도 계속 가져가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Q. 대면 학기를 맞이대나 우려되는 점은?

【서울】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온다면 기존에 우리가 즐겼던 온전한 대학 생활이 돌아올 수 있겠다는 기대도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오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학

내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 안전 조치가 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학교 본부와 논의하면서 개강 이후 어떤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제】 제한적 대면이지만 전면 대면과 다름없는 학기를 기대하고 싶다. 수업 운영은 물론이고, 학사 운영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인식이 비대면과는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비대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대면의 번거로움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Q. 학생 자치에 관한 관심이 줄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단과대가 늘고 있다. 학생 자치에 관한 관심을 촉구할 방안은?

【서울】 학생회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나 행사들이 학생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사에 참여하고 나노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관심은 좀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추

진하는 사업과 행사가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한다면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나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국제】 대면 체제에 돌입하고 학내 생활을 피부로 느끼다 보면 자연히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대면 행사 진행에 집중하는 것이 총학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 일환이 이번에 진행되는 총학 주관 엠티(MT)다.

Q. 이원화 문제에 대한 총학 차원의 대응은?

【서울】 양캠이 하나가 돼 움직이는 모습이 이원화 캠퍼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제캠에서 진행됐던 이원화 인식 표시 개선과 관련된 신고 제보를 함께 진행했고, 신입생 입학 키트를 동일하게 구성해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 인식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해 다가오는 축제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양캠 축제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원화 표기 정정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또 주요 문제였던 전과나 편입 등의 교칙은 이미 개정된 상태다. 이원화 체제에 대한 기반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국제캠만의 브랜딩이다. 우리 학교는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 체제다. 국제캠이 서울캠캠퍼스를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의 성과 등을 발판 삼아 독자적인 캠퍼스로 인식됐으면 한다.

Q. 2년 만에 대면 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서울】 대학 생활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우리학교의 발전된 학생 자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제】 두려움은 곧 설렘이다. 모르는 것을 처음 맞이했을 때 생긴 두려운 감정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설렘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총학의 역할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퍼스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기억이 아닌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대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겼으면 좋겠다.